

시와그림책 추천글

달려라 꼬마

-글 신경림 그림 주리

자유의 의미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아이들에게는 꼬마 곰의 모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느낄 수 있게 해 주기도 합니다. 포근한 그림과 함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책입니다.

달팽이 학교

-글 이정록 그림 주리

이정록 시인의 글과 주리 작가의 그림이 만난 시그림책 달팽이 학교
느릿느릿 유쾌하게 삶을 이어 나가는 달팽이들의 여유로움은 보는 동안 어느새 미소
짓게 합니다.
싱그러운 그림과 천진하고 익살스러운 이야기가 조화를 이룬 시그림책 달팽이 학교.
느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밭의 노래

-글 이해인 그림 백지혜

이해인 수녀님의 시로 만들어진 그림책. 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곤충들을 따스한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밭을 엄마의 마음에 비유하여 땅 속에 뿌리내린 식물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 줍니다.

잔잔하지만 깊은 생명력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에 대한 신비로움을 보여주며
자연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

-글 로버트 프로스트 그림 수잔 제퍼스 역자 이상희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새하얀 풍경의 일러스트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그림책 입니다.

숲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자리에 누우려면 한참 더 가야 하네.
한참을 더 가야 한다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눈 오는 숲의 묘사와 고요한 숲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야할 길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